**< 컴퓨터, 이용할 것인가 이용당할 것인가 >**

**-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16011909 영어영문학과 강영은

영화 ' 더 플랜 '을 보고 개표 프로그램이 이토록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영화를 보기 직전까지의 나의 인식과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출구 조사 조사원을 맡게 된 나는 이 영화를 감상하기 전 사전 교육을 통해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있다. 그 때 나는 '이렇게나 컴퓨터와 기계가 발달한 세상에 굳이 종이투표와 수개표를?'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던 것 같다. 컴퓨터가 개표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만 했지, 그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나 영화에서 나왔듯 프로그램 조작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컴퓨터에만 의존하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한다고 배워왔고, 거듭 다짐하면서도 나도 불과 컴퓨터 맹신주의에 빠진 현대인 중 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갑자기 회의감이 밀려왔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를 통해 나는 컴퓨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맹신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컴퓨터에서 비롯하는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일 것이다. 버그란 프로그램이 예상한 동작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내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뜻한다. 버그가 생길 경우 고치고 다시 작동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을 태우는 운송수단의 자동화 장치에 쓰였다면? 그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버그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3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충돌 사고는 조종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사고였다고 한다. 조종사들의 비행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낸 자동화 장치를 보조적 수단이 아닌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의존하다보니 시스템 오류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2009년 에어프랑스 추락 사고 또한 자동화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대형 사고들은 컴퓨터에 대한 우리의 맹신이 틀린 것임을 입증해준다. 컴퓨터를 결코 결함이 없는 완벽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급한 돌발 상황에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자신의 상황 판단 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대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러 돌발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없다. 영화 '더 플랜'의 전자개표기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투표의 결과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표기, 즉 그 안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어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례들이 컴퓨터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일이다. 예상되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버그를 악이용하는 특정 이익집단이 점점 더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었듯 프로그램에 침투하여 투표에서 원하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낼 수도,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도 있다. 더 이상 SF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가상의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SNS나 포털사이트,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는 사람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만큼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sns가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의 징검다리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에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주소의 사용자가 어떤 sns를 하고 무슨 게시물을 올렸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간의 인터넷 활동 흔적들이 어딘가에 삭제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sns서비스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전체를 해킹하여 수십만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있다. GPS를 통한 위치기반시스템 또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에 서비스 사용자의 움직임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생활 침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편리함과 소중한 개인정보를 맞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사용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간 소외 현상**이다. 말 그대로 인간이 기계 때문에 소외되고 도태된다는 것이다. 최근 언어 데이터와 텍스트마이닝 과제를 위해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를 사용해보면서 정말 머지않아 인간이 할 일 모두를 컴퓨터가 수행할 날이 오겠구나 느끼게 되었다. 몇 달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때만 해도 컴퓨터가 단어 그 자체만을 번역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얻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도입되어 정말 사람이 번역한 것과 같은 맥락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분명 뛰어난 기술이고 나 또한 무척 편리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이는 언어번역이라는 인간에게 중요한 영역 하나를 기술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인간의 역할 하나가 줄어든다는 씁쓸함도 느끼게 한다. 이제 더 이상 번역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고, 내가 작년에 수강한 '영문번역의 첫걸음'이라는 과목은 미래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과목일지도 모른다. 번역 기술 한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셀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손으로 만들고 머리로 직접 생각해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간 사고의 획일화를 불러올 것이다. 결국 컴퓨터와 기술이 인간 우위에 서게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대한 맹신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가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컴퓨터와 기계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기에 당장 기술의 발전을 멈추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우리는 언제나 컴퓨터가 인간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갑작스런 돌발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응은 컴퓨터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수단을 포함한 여러 기계의 자동화 장치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절대 컴퓨터에 모든 걸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화의 편리함에 따른 안전 불감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동화 장치의 존재 자체로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기술 숙지에 있어 소홀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전, 비행 시 자동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철저히 제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 더 플랜 끝부분에서 김어준씨가 언급했듯이 개표 시 수검표를 우선으로,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투표 결과를 내야한다. 이렇게 컴퓨터 기술이 발달할 수록, 컴퓨터에 대한 맹신은 줄이고 인간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보안에 집중해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교한 만큼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공간이다. 따라서 시스템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안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포털사이트의 정보 이용 기록 삭제를 보편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과거 사진과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포털 사이트에 문의 했지만 그러한 기록을 일일이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 측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함부로 개인 정보를 sns에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게시물에 대한 공개 범위 설정을 철저히 하는 등 자신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 공장에서는 하루종일 기계를 작동시키면 가격, 시간 면에서 효율적으로 같은 모양의 케이크 100개, 200개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높은 가격의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번역 기술도 마찬가지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번역기술은 맥락적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 설명문 등의 여러가지 텍스트를 쉽고 빠르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번역 기술이 문학 작품의 섬세한 감정과 말투를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계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의 영역까지 읽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번역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쇠퇴해갔던 인문학이 요즘 다시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할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에 대한 맹신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컴퓨터와 기계를 지혜롭게 이용하되, 이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인간의 능력도 함께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